

저유가 · 그리스 사태 · IS… 중동 · 플랜트 중심 해외건설에 설상가상

손태홍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thsohn@cerik.re.kr

우리나라가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해외 건설시장 진출 50년 만에 누적 수주 규모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해외 시장 진출 기업의 수는 330개가 넘고 공사 건수도 1,773건에 이른다.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수주는 255억 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32% 이상 감소하였고, 특히 주력 시장이었던 중동 지역에서의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유가의 지속과 정정 불안,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스 사태까지 더해져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 동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시장을 둘러싼 위협 요인들을 살펴보고 우리 건설기업들의 대응 방

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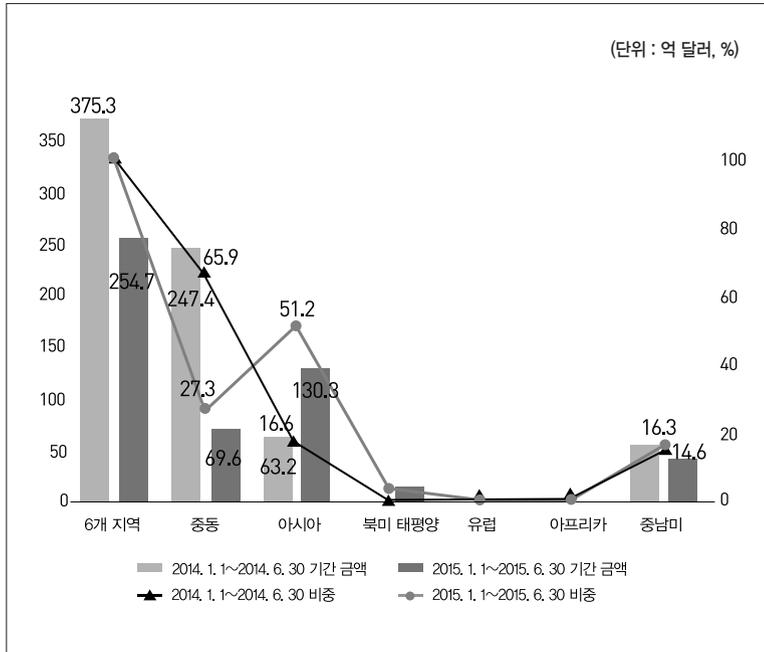
2015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25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하반기부터 지속된 국제 유가 하락과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등이 건설시장 위축을 불러오면서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의 수주 규모가 전년 대비 28.1% 수준인 69.6억 달러로 급감한 것이 부진한 수주 실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에, 중동 시장의 부진과는 달리 아시아에서의 수주는 130.3억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실적의 51.2%를 차지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중남미 시장의 수주

는 4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의 16.3%를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중동과 아시아 건설시장에 대한 수주의 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플랜트 부문이 전체의 59.2%인 150.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0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중동 플랜트시장에서의 부진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플랜트를 제외한 건축 및 토목 등 타 부문의 실적이 비록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공종 다변화를 언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상반기에 입찰이 연기됐던 쿠웨이트 정유공장(NRP) 등을 포함해 신규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발주된다 하더라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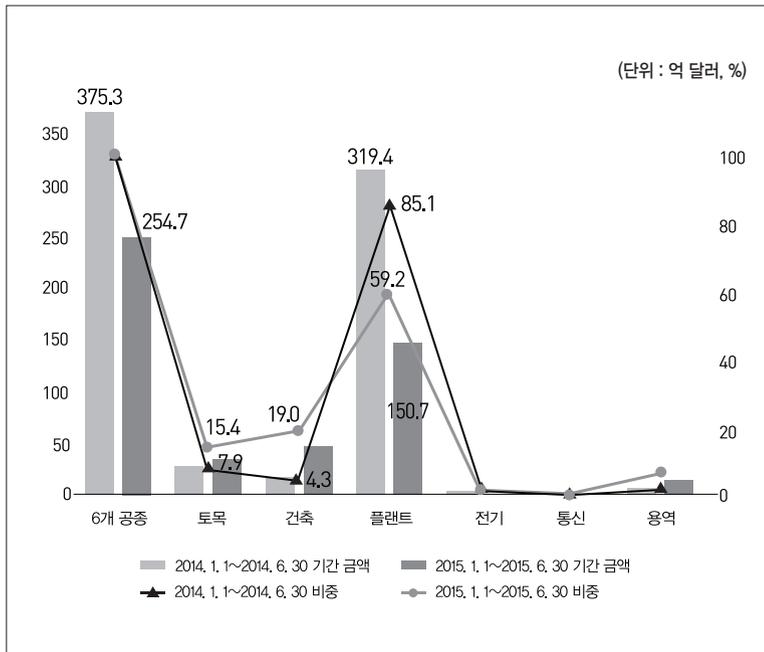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지역별(상) 및 공종별(하) 수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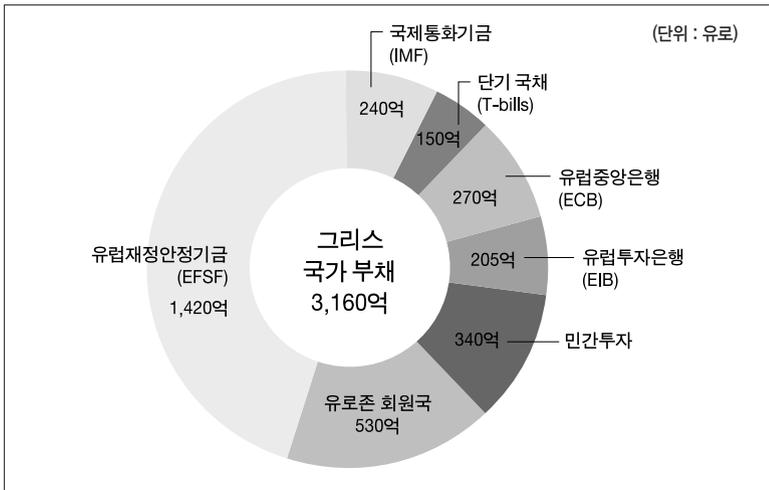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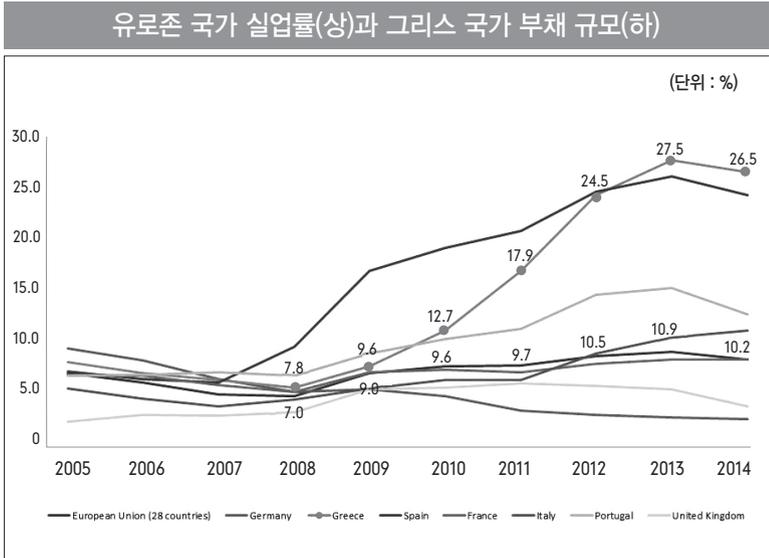
실적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 지속,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유로화 약세, 정정 불안 등 기존의 시장 불안 요인 외에 그리스 사태 장기화 등과 같은 해외건설시장을 둘러싼 부정적 요인들이 증가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극적인 수주 환경 개선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기회 요인들을 포착해 수주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건설시장의 주요 환경 요인

최근 해외건설시장의 수주 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들 중에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유가의 하락세 장기화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의 하락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량에 있다. 지난해 9월 일일 100만 배럴 이상이었던 초과 공급 규모가 올해 5월에는 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란과 국제 사회의 핵협상 타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단계적인 경제 제재 해제 조치에 따른 이란의 석유 수출량 증가는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정상적인 원



자료 : 해외건설협회.



자료 : EURO Stat(상), 연합뉴스(하) 재인용.

그리스 사태 등과 같은 유가 하락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급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저유가와 더불어 해외건설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 요인은 그리스 사태의 장기화다. 7월 17일 현재, 그리스는 IMF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술적인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사실상의 국가 부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는 국가 부채가 3,160억 유로에 달하고, 수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의 비중이 낮으며, GDP의 18% 이상을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다. 실업률도 27%에 이른다. 이러한 그리스 경제 구조로는 IMF의 분석에 따른 30%의 부채탕감(Haircut)을 받더라도 상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비록 유로존 탈퇴는 막았지만 그리스에 약 860억 유로 규모의 제3차 구제금융이 공급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정치 및 사회적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유 수출량 증가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일일 최대 120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최근 OPEC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2014년 석유 수출액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

출 기반의 국가들이 직면한 재정 수입 감소는 중동 산유국들의 건설투자 축소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해외건설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사우디 간 석유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 및

그리스가 실행해야 할 재정 긴축 프로그램의 강도가 국민투표 전 채권단이 제시한 안보다 높아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긴축과 이자 감면 및 부채 상환 기간 연장만으로는 그리스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유예는 정치적 합의에 따른 일시적 봉합 수준에 그친 것이며,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그리스 사태가 그리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주변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재정기 취약한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수준의 경제 규모를 하나의 기축통화로 묶고 그에 따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유로존에서는 간과하지 못할 요인이다.

IS 창궐에 따른 파급 효과도 커지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의 경제는 Islamic State(IS)의 등장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년 전 IS가 수니파 무슬림 군사 세력과 연합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국가를 선언한 이후 추산된 경제 손실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¹⁾ 특히 저유가로 인해 재정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IS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 지출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오만 및 카타르 등이 수입한 무기 규모는 1,090억 달러로 이는 2012년 대비

44%나 증가한 규모다.

IS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라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분석에 따르면 IS의 창궐로 이라크의 비석유 분야의 성장률이 2014년에만 3.2% 감소했으며 2015년에도 1.8%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IS와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인해 석유 시추와 수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시설 파괴로 18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회시설 복구에만 4.2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분석에서 따르면 이라크가 IS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직간접 피해액의 연간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IS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극심한 치안 불안 상태의 지속은 외국인 투자 감소를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동·플랜트 중심의 수주 전략에서 탈피해야

해외건설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투자개발형 사업 등과 같은 사업 니즈가 증가하는 반면에 단순도급 방식의 사업은 과거와 같은 수익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

으며,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선·후발 진출 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 및 저유가 지속, 그리스 사태 악화, 정정 불안 등 해외건설시장의 안정성을 낮추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 부진한 수주 실적을 기록한 우리 해외건설이 하반기 실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각 요인별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한 사업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상술한 요인들이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동 및 플랜트 중심의 수주 전략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외형 성장세가 위축될 경우 전반적인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석유 화학 및 정유 등 플랜트 중심의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건축과 토목 중심 사회 인프라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CERIK

1)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2015).